

# 전쟁에 있어 정치와 군사의 역할 고찰

## - 독일의 근·현대사 분석 -

로온(Albert Von Roon, 1803~1879)은 칼을 갈아 준비하고,  
몰트케(Helmuth von Moltke, 1800~1891)는 이 칼을 쓰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3)는 외교로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여  
프러시아를 오늘의 승리로 이끌었다.

- 보불전쟁 승리 축하연에서 빌헬름 1세



지구사 작전처 UFG 연습장교 중령 하 성 우

### 약 력

- 기보사 작전처 작전장교
- 미 8군 한국군지원단 정작과장
- 인도 국방참모대 수료
- 육대 전술1학처 전술교관
- 미 합동참모대학 수료

###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1. 프러시아의 융성과 독일 통일
  2. 제1차 세계대전 전·후
  3. 제2차 세계대전 전·후
  4. 시사점
- III. 결 론

## I. 서론

2010년 6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총지휘하던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 사령관 스탠리 매크리스털(Stanley A. McChrystal) 대장이 경질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말한 사실이 문민통제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2010년 10월로 만 9년이 된 아프간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해야 하는 군과 조기 철군이라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싶은 백악관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를 비롯한 외부로부터 간섭받기를 달가워하지 않거나 가끔은 군사작전목표를 국가전쟁목적과 혼동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정치지도자들은 전쟁과 그 주수행자인 군을 수단으로만 보고 정치논리로 전쟁을 이끌어가거나, 군이 정치논리에 순응하기만을 원하는 독선에 빠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과연 전쟁을 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군사의 올바른 역할 분담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 간의 올바른 역할 설정은 국가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재평가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치와 군사의 역할 분담은 역시 중요한 과제다.<sup>1)</sup> 표면적으로 보이는 군사적 충돌 및 조치 이면에 위기억제 및 관리로부터 사후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국가안보체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정치와 군사의 올바른 역할을 돌아보고자 한다. 고찰에 있어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온 독일의 근·현대사<sup>2)</sup>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프러시아의 융성과 독일 통일과정에서 수행한 전쟁들,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구분하여 위기관리와 전쟁에 있어서 정치와 군사에 대한 역할을 돌아볼 것이다.

1) 본 논문의 게재 여부가 심의되는 즈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였다. 적 도발에 대한 초기 조치 과정에서 통수권자의 전략지침과 군의 교전수칙에 대한 적절성 논쟁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여전히 정치와 군사의 역할 분담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일반적으로 근대사는 30년 전쟁 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1648년)에 의한 근대국가 탄생 이후를 일컫는다. 본고에서는 비스마르크의 등장 이후인 1860년대 이후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간추려 제시하되, 우리가 처한 현실정치 속에서 안보 현안에 대한 군과 정치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숙의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 II. 본 론

### 1. 프러시아의 융성과 독일 통일

먼저 신성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프러시아 왕국을 중심으로 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각각 수행한 전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치 및 군사기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조직을 이끈 인물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그 조직을 운용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기에 인간이 곧 조직이요, 역사라고 봐도 대의적으로는 결코 그릇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가. 프러시아의 융성

오토(Otto) 대제 이후 약 천년동안 국가의 명맥을 유지해 오던 신성로마제국은 1806년 10월 14일 예나-아우어슈데트(Jenna-Auerstedt)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에게 패배함으로써 멸망했다. 이후 제국의 영토는 나폴레옹의 보호국이 된 라인연방(Rheinbunstaaten), 호엔촐레른(Hohenzollern) 가의 프러시아, 그리고 합스부르크(Habsburg) 가의 오스트리아로 분할되었다. 1815년 빈 회의의 결정에 의해 독일 연방이 등장했으나 영성한 정치체제였다. 독일 대학생 연합에 의해 한 차례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탄압받았으며, 경제인들에 의한 경제적 통일 노력이 주효하여 북부통일에 이어 1844년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전 독일국가가 참여한 관세동맹이 체결되면서 경제적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sup>3)</sup>

3) 김장수, 「비스마르크 : 독일제국을 탄생시킨 현실정치가」, 2009, pp.14 ~ 15.

비스마르크는 완전한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프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오스트리아 제국과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독일 통일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에어프르트 연합회의(Das Erfurter Unions)의 일원으로, 또한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 대사로 활동하다가 빈 정부에 의해 해임되기도 했다. 이후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프러시아 공사로 근무하면서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외교적 업적으로 국내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정책(Bonapartism)<sup>4)</sup>을 세밀히 관찰할 수 있었다. 마침내 비스마르크는 국왕과 의회가 헌법분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1862년 9월 23일 임시수상으로 임명되었으며, 관료와 군대를 장악하고 독일 연방의 개혁을 위한 행보를 해나갔다.<sup>5)</sup>

그에 앞서 1859년 호엔츨레른가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한 빌헬름 1세(Wilhelm I)는 섭정지위에 있을 때 전쟁장관(Kriegminister)과 참모총장으로 로온과 몰트케를 임명하여 프러시아군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했다. 이로서 독일 통일을 향한 프러시아의 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세 사람, 수상 비스마르크, 전쟁장관 로온, 참모총장 몰트케가 등장하게 되었다.

1871년 1월 18일 독일 제국이 건국되기까지 프러시아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프러시아가 수행한 전쟁은 영토 확장, 전쟁배당금 확보와 같은 일반적인 전쟁의 발발 배경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으며,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수단의 성격이 강했다. 이들 세 차례의 전쟁을 살펴봄에 있어서 무엇보다 비스마르크와 로온, 몰트케 세 사람이 보여준 정치 및 군사차원의 역할에 주안을 두고자 한다.

## 나. 세 차례의 전쟁

### 1) 프러시아·덴마크 전쟁(1864. 2. 16 ~ 8. 1)

1863년 11월 덴마크가 독일 연방에 속하지 않았던 슐레스비히를 흡수타인으로부터 분리시켜 덴마크 연방에 합병하자, 비스마르크는 1864년 오스트리아 제국과 제휴

4)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방법보다 정복정책, 팽창정책을 통해 얻게 될 민족적 자긍심과 현실적인 이익들을 통해 국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따르려는 정책의 흐름을 보나파르트 정책이라 일컫음.

5) 빌헬름 몸젠, 최경은 역, 「비스마르크」, 1997. pp.63~65.

하여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공국을 해방시켰다.

프러시아와 덴마크 전쟁이 있기 이전인 1848년부터 1849년간 프러시아는 쉘레스비히와 홀스타인 공국을 해방시켜 독일에 통합시키려 했으나 실패했고, 1851년 런던 협정 이후 덴마크왕의 지배하에 놓였다. 원래 협정에서는 양 공국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덴마크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규정하였으나, 덴마크가 따르지 않았다.<sup>6)</sup> 1863년 쉘레스비히는 덴마크에 합병되었는데, 덴마크왕(프리드리히 7세)이 죽은 후 해방을 도모하였으나, 새로 옹립된 왕이 강제로 쉘레스비히를 편입하였다. 하지만 비스마르크의 노련한 외교술에 의해 강제편입을 시도한 덴마크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주변강대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특히 비스마르크는 덴마크에 대항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제국과 동맹을 맺는 등 뛰어난 외교적 성과를 거둬 탁월한 정치가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대 덴마크 전을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비스마르크의 외교적 업적과 더불어 참모총장 몰트케의 작전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864년 당시 참모총장 몰트케가 이끌던 참모본부는 총인원 64명, 그 중 50명이 참모장교이었으며, 참모총장은 사단장에 준하는 격의 직무에 지나지 않았다. 즉, 오늘날 참모총장의 권위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몰트케는 덴마크 군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도 측면으로 우회하여 주력이 섬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하지만 당시 보오 동맹군 사령관이었던 브랑겔(Graf von Wrangel) 원수가 이를 무시함으로써 실전부대에게는 그의 명령이 직접영향을 주지 못했다. 당시에는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이 부여되지 않았기에 그의 명령은 실현되지 못했다.

예상했던 대로 덴마크군은 섬의 요새로 철수했고 보오군은 난관에 봉착했다. 자칫 전쟁이 장기화되면 영국의 간섭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전쟁장관 로온은 몰트케의 작전지도가 옳았음을 인식하고, 국왕에게 그의 지혜를 빌리도록 건의하였다. 마침내 몰트케가 현지의 참모총장으로서 작전을 지도하여 단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시켜 크게 명성을 얻었다.<sup>7)</sup>

몰트케 역시 1857년 참모총장 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덴마크와의 전쟁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덴마크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몰트케의

6) 발터슈미트 외, 강대석 역, “오늘의 사상신서 166”, 『독일군대사』, 1994, pp.727 ~ 729.

7) 와타나베 쇼오이찌, 강창구 역, 『독일군 참모본부』, 1992, pp.154 ~ 155.

정확하고 적절한 작전지도는 국왕을 비롯한 로온, 비스마르크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고, 참모총장 자신과 참모본부의 작전지도 영역에 대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수행에 있어서 자국의 정당성을 유지함으로써 주변국으로부터 지지와 동맹을 확보하고 상대국을 외교적 고립에 놓이게 하는 정치의 노력은 전쟁의 승리에 밑바탕이다. 정치의 실패로 영국이나 프랑스가 덴마크를 강력히 지원하거나 후방을 위협하게 될 오스트리아 제국과의 동맹에 실패했다면, 덴마크와의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했거나 단기간 내 승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군사작전의 승리가 없었다면 전쟁의 승리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몰트케의 탁월한 작전지휘는 단시일 내 작전을 종결함으로써 유리한 여건에서 전쟁을 종결하게 하였다.

## 2) 프러시아 · 오스트리아 전쟁(보오전쟁, 1866. 6. 21 ~ 7. 26)

덴마크와의 전쟁으로 획득한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에 대한 소유권 논쟁은 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러시아의 관계를 상당히 악화시켰다. 그렇지만 비스마르크는 동맹이 아직 살아있음을 믿고 협상을 통해 1865년 8월 오스트리아 제국은 홀슈타인을, 프러시아가 슐레스비히를 관할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하지만 독일 통일에서 주도권 투쟁은 연기되었을 뿐 이것으로 종결되지는 않았다. 독일 통일 방법과 슐레스비히 · 홀슈타인 문제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교노력에 힘쓰면서 전쟁에도 단호히 대비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와의 협상을 통해 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프러시아 편을 든다는 조약을 1866년 4월에 체결하였다.<sup>8)</sup> 비스마르크는 분쟁을 일삼는 재상이라는 국내외의 비난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외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전쟁이 불가피함을 깨달았을 때에는 신속히 전쟁을 결정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였다.

프러시아 - 오스트리아 전쟁은 소독일주의로 통일을 추구하던 프러시아와 대독일주의<sup>9)</sup>를 지향하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 간에 독일연방내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이다. 비스마르크와 몰트케는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독일 통일을 위해 오스트리아 제국과의 일전이 불가피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비스마르크는 이탈리아로 오스트리아 제국의 배후를 공격하게 하고 다른 열강들이 간섭하지 않도록

8) 빌헬름 뮌젠, 전게서, pp.85 ~ 86.

9) 소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제외하고 프러시아를 중심한 독일연방의 북부만으로 통일하는 것이며,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포함하여 전체 독일연방을 통일하자는 주장임.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몰트케는 이런 외교적 틀 안에서 대오스트리아전의 전략을 짰다.

몰트케는 일찍이 철도 운용과 동원을 통한 외선작전 즉, 포위 공격에 중점을 두었다. 프리시아군의 6/7을 약 3백km의 장대한 활처럼 진을 치고 그대로 분산 전진하게 하여 적과 조우할 때까지 점차로 고리를 좁히고, 주전장에서 일거에 포위 섬멸하려는 매우 대담한 계획이었다. 당시 전장에 이르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철도는 하나였고, 프리시아는 다섯이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몰트케는 이런 철도망과 동원계획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당시 계획수립은 참모총장의 몫이었지만 명령은 전쟁장관이 내리게 되어 있었는데, 전쟁장관 로온은 비스마르크의 요구에 따라 몰트케를 무시하고, 라인강 수비에 1개 군단을 남겨두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몰트케는 분산이 가져올 재앙을 국왕에게 고하고 명령을 취소하게 했다.<sup>10)</sup> 이를 계기로 작전명령을 참모총장이 내리고 전쟁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되었다.

프리시아 국내외의 부정적인 예측과는 달리 3개 방면에서 집중하여 사상 최대의 포위작전은 완전히 성공하였다. 이어 몰트케는 군사적 승리의 여세를 몰아 수도 비인 입성을 주장했으나, 비스마르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독일 통일을 위해 프랑스와의 일전은 불가피하고, 그러기 위해 오스트리아 제국의 호의적인 중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구태여 깊은 원한을 살 필요가 없음을 비스마르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영토적 분할이나 배상금 지급 없이 즉시 강화를 맺고자 했던 비스마르크의 의견을 위대한 군인인 몰트케를 비롯한 군인들은 적어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비스마르크는 극도의 난관에 봉착했지만, 황태자의 후원으로 전승군을 이끌고 비인으로 진격하려는 부왕을 설득하여 강화에 성공함으로써 전장의 승리를 전쟁의 승리로 직결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간섭하고 나설 틈을 주지 않고 끝낸 것이다. 대외정치면에서 비스마르크가 바라본 프리시아가 처한 위험과 보오전쟁 종결을 위한 외교노력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그의 언급에서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

10) 이때부터 비스마르크와 몰트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함. 그러나 프리시아의 융성과 독일제국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는 철저히 협력하였음.

“나폴레옹 3세의 개입(보오전쟁간 프랑스의 개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좋다. 만약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귀한 평화도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빨리 도취해버렸다. 나는 물을 도수 높은 포도주에 붓는 보람 없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홀로 유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강대국들이 아직 세 나라나 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sup>11)</sup>

보오전쟁의 작전계획수립 시로부터 강화협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논쟁은 전쟁수행에서 위대한 정치가와 위대한 군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3) 프러시아·프랑스 전쟁(보불전쟁, 1870. 7. 19. ~ 1871. 5. 10.)

이 전쟁의 근본적인 배경은 독일의 통일을 완수하려는 프러시아의 정책과 이러한 통일을 저해하려는 프랑스의 정책이 서로 충돌한 데 있었다.<sup>12)</sup> 현실적으로는 1868년 9월에 에스파냐의 이사벨라 여왕이 혁명에 의해 축출되고, 의회가 입헌군주제를 결정하자 적대세력들은 서로 왕위계승자를 물색하고 나섰다. 비스마르크는 비밀요원을 마드리드로 보내 정치가들을 매수하는 등 책략을 통해 프러시아 태자인 레오폴트로 하여금 왕위계승을 선언하게 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대사를 통해 프러시아의 왕위계승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여 빌헬름 1세에게서 양보를 얻어내는 듯 했으나 결국 거절되었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실수를 간파하고 프랑스가 전쟁정책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전파하고 프랑스 정부를 자극하여 프랑스를 전쟁으로 유인하였다. 마침내 1870년 7월 10일 프랑스는 프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의 외교적 고립이 드러났다. 이는 비스마르크의 책략에 의해 부각된 프랑스의 호전성과 선전포고 선포, 주위국가들과의 외교적 우호관계 유지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의 위협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sup>13)</sup>이 중립을 지켰고,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프랑스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였다. 유럽에서 프랑스의 주도권을 원하지 않았던 영국도 중립을 지켰다. 보불전쟁은 지역분쟁으로 국한되었는데, 이는

11) 빌헬름 몸젠, 전게서 p.96.

12) 발터슈미트 외, 전게서, p.825.

13) 오스트리아 제국은 1866년 보오전쟁에서 패배 이후 연합체제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수립하였으며, 1919년 9월 파리 서쪽 생제르맹(Saint-Germain)에서 연합국과 오스트리아가 맺은 강화조약인 생제르맹 조약으로 헝가리를 비롯,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였음.

비스마르크가 원하는 바였다.

고회의 고령인 참모총장 몰트케도 보오전쟁이 종결된 후 유럽대륙에서 독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일전이 불가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불작전계획을 수립해왔기에 막상 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처럼 할 일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sup>14)</sup>라고 할 정도로 준비된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비스마르크는 군사적으로 이런 몰트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또한 프랑스의 의회가 개전을 결정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형태를 취하는 교묘한 외교정책으로 타국이 간섭할 틈을 주지 않았으며, 몰트케는 순수한 군사적 견지에서 프랑스 전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개전 1개월 반 만에 프러시아는 효과적으로 방어작전을 실시하여 프랑스 국왕 나폴레옹 3세를 포함하여 대군을 포로로 잡게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알사스와 로렌을 합병하고 신속히 강화 교섭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몰트케는 파리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보오전쟁에서 비인 점령을 하지 못한 군은 파리 점령을 갈망하며 파리를 철통같이 포위하였고, 비스마르크에게는 외교교섭에 필요한 군사정보까지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sup>15)</sup> 더욱이 비스마르크가 외교교섭을 해야 할 대상인 국왕을 포로로 하고 있어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프러시아 본국은 비어있었고, 러시아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영국이 움직인다면 큰일이었다.

비스마르크와 국왕은 파리를 포위한 이상 포격이라도 해서 신속히 전쟁을 종결하기를 원했으나, 몰트케는 탄약이 불충분함을 들어 포위를 풀지 않은 가운데 장기전화 함으로써 식량 부족으로 항복해오도록 강요하였다. 비스마르크는 파리 포격을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몰트케가 자신의 군사적 영역을 벗어나 행동했다고 간주하였다. 결국 빌헬름 1세는 비스마르크의 편을 들어 알력을 해소하고자 했다.<sup>16)</sup> 1870년 9월 19일에 파리를 포위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1871년 1월 15일에 가서야 파리 포격을 개시하여 1월 26일에 휴전이 성립되었다.<sup>17)</sup>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몰트케는 당초의 예측에 중대한 오산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대부분 전선에서 승리하여도 계속 싸우는 요새군(要塞軍)과 국왕이 없어도 계속 싸우는 비정규 국민군의

14) 전게서, p.826.

15) 와타나베 쇼오이찌, 전게서, p.175.

16) 빌헬름 몸젠, 전게서, p.128.

17) 그에 앞서 1월 18일에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독일 2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음, 독일 통일과정에서 프러시아를 중심한 독일 제국의 수립은 가능한 다수 방안 중에서 선택된 정치적 대안이었음.

출현은 전쟁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인식하였다.

비스마르크와 몰트케가 함께 꿈꾸었던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다. 그들의 관계가 온화하지만은 않았지만,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원활하였다. 비스마르크는 몰트케의 군사적 견해를 항상 외교 정책상의 중요요소로 간주하였고, 또 몰트케는 비스마르크를 신뢰하고 외교에 대해서는 참견하는 경우가 없었다. 참모본부가 제일 두려워했던 다정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스마르크는 외교적 노력으로 철저히 보장해 주었다. 이는 독일의 지리적 여건상 매우 어려운 것이었으며, 앞서 프리드리히 대왕이나 이후 제1·2차 세계대전에서도 실패했던 원인인 것이다. 전쟁 중 지휘권에 대해서는 비스마르크를 배제했던 몰트케는 외교에 관하여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만 그치고 철저히 절도를 지켰다.

군사적으로 몰트케는 군대보다 무장한 농민을 격퇴하는 것은 더 어렵고, 앞으로의 전쟁은 장기전이 되어 한두 번의 전투로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을 것을 예견했다. 비스마르크 역시 이 나라의 외교가 실패하면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7년 쯤 계속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였다. 위대한 정치가와 위대한 군인의 예측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여실히 입증되었으며, 정치와 군사의 조화를 그리워하게 된다.

#### 다. 비스마르크와 몰트케 이후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프랑스의 동맹 체결을 막기 위해 1887년 6월 18일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와 배후안전조약을 체결했는데, 1890년 3월 20일 비스마르크가 수상 직에서 물러나면서 복잡하고 위험한 동맹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sup>18)</sup> 즉, 빌헬름 2세는 그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러시아와의 배후안전조약을 6월 18일에 폐기하였다. 이에 러시아가 일변하여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으며, 이로써 독일은 두 정면에서 거대한 육군을 가진 나라를 적으로 두게 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없는 독일은 이제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외교적 고립상태로 빠져드는 것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비스마르크의 실각 후 독일제국은 25년 동안 고립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편, 군부에는 몰트케, 발더제를 이어 강력한 참모총장 술리펜 백작이 발탁되었다.

18) 김장수, 전계서, p.60.

슐리펜은 다정면 또는 양면전쟁을 필연적 운명으로 믿고 있었다. 즉, 그는 정치가의 리더십을 믿지 않았다. 정치지도자가 없는 군의 비극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몰트케의 경우에는 외교를 믿는 사고방식이었는데, 슐리펜의 경우에는 다만 격멸이 있을 뿐 외교의 요소는 들어있지 않았다. 국가의 리더십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그만큼 현실을 직시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슐리펜은 「단기 다정면 전쟁, 완전각개격파」라는 근본 전략을 세웠는데, 다정면 전쟁은 프리드리히 7년 전쟁을, 완전격파에 대해서는 칸네 전투를 참고했었다. 또한 러일전쟁의 교훈도 검토하였는데, 포위섬멸이 아닌 정면공격으로 요양전투, 봉천전투에서 승리했어도 패한 러시아는 단시간 내에 회복하여 지구전 양상을 띠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타개한 것이 일본의 외교였다는 것을 슐리펜은 믿지 않았다.<sup>19)</sup> 또한 슐리펜의 생각은 칸네 전투의 최후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다. 사실 카르타고 정치가 중에는 칸네 전투의 대승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전쟁의 승리로 결부시킬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전쟁은 그냥 14년간이나 계속되었고 한니발은 대수롭지 않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카르타고 자체도 소멸하게 되었다.

슐리펜과 그의 명쾌한 포위섬멸 계획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인접 유럽 국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참모와 그의 작전계획이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독일로서는 비극이었다. 비밀에 붙여져야 할 작전계획과 참모본부의 운용이 미래의 적이 될 인접 국가에게까지 알려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벨기에가 그 소식을 접하고 리쥬와 나무르를 요새화한 것은 노출된 작전계획이 가져다준 결과였다. 정치가가 국제사회의 신망을 얻고 외교협상력을 갖추는 것과 달리 군은 철저히 은둔한 가운데 미래의 전장을 대비해야 한다.

## 2.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빌헬름 2세는 위대한 조부 빌헬름 1세가 가졌던 위대한 참모총장과 같은 이름의 참모총장을 자신도 두고 싶은 유치한 동기에서 大몰트케(1800~1891)의 조카인 小몰트케(1848~1916)를 슐리펜의 후임자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몰트케는 그 자신도 그런

19) 와다나베 쇼오이찌, 전게서, p.196.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으니, 전쟁을 준비하는 독일 제국에게는 불행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전개, 군부의 득세 과정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가. 대전의 발발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프란츠 페르디난트, 1863~1914) 부부 암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은 개전할 결의도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말려들어 대전에 돌입했다. 우유부단했던 리더는 유럽나라들 중에서 동원령도 가장 늦게 선포하였고, 선전포고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벨기에가 길을 열어주지 않자 부득이 개전을 선포하였다. 전쟁을 수단으로 선택했다기보다 선택을 강요당했다고 볼 수 있다.

소몰트케는 슬리펜 계획을 믿지 않았지만, 대안도 없었기에 약간 수정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포위섬멸을 위한 해머(Hammer)가 될 우익을 철저하게 강화하라는 슬리펜의 유연도 저버리고 2개 군단을 우익군에서 빼돌려 러시아 전역에 투입하는 우매함을 저지르게 된다.

대전발발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황제 밑에서 신경쇠약으로 의기소침해진 몰트케를 뒤이어 팔켄하인(1914. 11월)이 등장하여 전쟁장관과 참모총장을 최초로 겸직하였는데 훌륭히 작전을 지도하였지만,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 나. 타넨베르크 전투의 영웅

전면에서 사라진, 부족한 황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강력한 군사지도자의 등장은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르겠다. 1914년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했던 사령관 힌텐부르크와 참모장 루덴도르프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 존경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1916년 8월 참모총장 팔켄하인이 베르딩 전투 실패로 사임하고 힌텐부르크가 참모총장, 루덴도르프가 참모차장, 즉 실질적으로 총사령관, 참모총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들은 1916년 가을 이후 사실상 독일을 지배하는 군사 독재자가 되어 독일 전체를 통제하려 했으며, 황제도 이들에게 모든 주요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루덴도르프는 참모차장에 불과했지만 힌텐부르크를 제치고 군사 및 정치부분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정부각료를 루덴도르프가 경질하는 일도 있었다.

대전 말기에 루덴도르프는 패전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독일 군부를 지키기 위해 계략을 꾸렸다. 제국수상 게오르크프 헤르틀링과 외무대신 파울 폰 힌체를 조종하여 제국의회의 다수당을 중심으로 한 민간정부를 수립하여 휴전회담에 임하게 함으로써, 독일군은 계속 승리하고 있었는데 좌파세력이 독일군을 배신하고 항복했다는 인식을 심기위한 계략이었다. 즉 전쟁이 끝난 후 군부는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남아 항복한 문민정부를 경질하려는 계산이었다. 대전말기에 루덴도르프는 문민정부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저항을 고집하면서 휴전을 반대하여 패전의 책임을 문민정부에 돌리고자 했으나 더 이상 독일군이 저항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권력의 기반을 상실하고 2년여 만에 사임하였다.

대전 후반에 루덴도르프가 용병술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으나, 그 역시도 군사 이외의 것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 독일에는 「로이드 조지(대전 중의 영국 총리)」와 프랑스의 「클레망소(프랑스 전시내각의 총리)」와 같은 탁월한 정치지도자가 없었던 것이다.<sup>20)</sup>

독일은 총 동원병력 3천 3백만의 연합군과 맞서 4년 이상 싸웠고 단 한발도 자국 영토 내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서도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 패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슐리펜의 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적 리더십과 대전에서 보여준 전투의 승리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 속에서 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었다. 도처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독일군과 국민들은 군사적인 패배감 없이 가혹한 베르사이유 체제를 맞보게 되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군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가 서툴렀다는 인식이 쉽게 널리 퍼져 나갔다.

#### 다. 마지막 2년 - 군국주의로의 급전환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2년에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가 행한 작전지휘의 모습은 절대 권력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sup>21)</sup> 군 통솔력에 있어서 엄청난 권력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 국민이 가진 타넨베르크 전투의 승리자에 대한 전례 없는 신망과 더불어 유명무실한 정치지도자의 역할 때문이었다.

20) 와타나베 쇼이치, 전게서, p.206.

21) 사무엘 P. 헌팅턴, 박두복·김영로 공역, 「군과 국가」, 1997, p.139.

두 사람이 이 신망을 기초로 황제 빌헬름 2세를 조정하는 데에는 ‘사임위협’ 만으로도 충분하였다. 이 사임위협으로 루덴도르프는 참모본부와 민간관료간의 대부분의 마찰에서 황제로 하여금 군부의 견해에 따르게끔 강제할 수 있었다. 1917년 여름 수상인 베트만홀베크를 축출하고 그 후임으로 몇 개월 뒤 허수아비 상전 역할도 하지 못하고 축출 당하게 되는 헤르틀링 백작을 임명하였다. 1918년에는 군부가 제시한 평화조약에 반대하는 외무장관을 해임하기도 했다. 1917년엔 수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잠수함 공격 감행과 1916년엔 폴란드 육군사단을 동맹군의 일원으로 추가 편입시킬 희망으로 1916년 가을, 독립 폴란드 왕국의 창설을 주장하여 성공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평화조약의 체결이 지연되었다. 이처럼 군 본연의 직분에서 이탈하여 국가정책에 개입하고 있었다. 1917년 내내 그들은 합병주의적 전쟁목표 유지를 주장하며 협상에 의한 평화달성 노력을 좌절시켰다.

이런 군부의 교의는 1935년에 발간된 루덴도르프의 「총력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루덴도르프는 직업군인의 전통을 일언지하에 거부하면서 “클라우제비츠의 모든 이론들을 내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 전쟁은 정치에 종속되었는데, 정치가 전쟁에 종속되어야 한다. 보불전쟁과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겪은 괴로움은 황제, 수상, 참모총장간의 권위의 분산이었다. 전시에 모든 권위는 최고사령관에 복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사상의 근간인 민간에 대한 군의 우위는 결국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종국적인 패배를 가져왔다.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전쟁을 수행해야함에도 군사작전을 위해 모든 국가요소를 동원하고 민간의 어떠한 협상노력이나 외교전략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로 베르사이유 체제와 같은 강제된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어떤 국가이익도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출범(1919년)이 있고서야 국가에 대한 군의 완전한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한 관계 정립이기보다는 체제기반이 약했던 바이마르 정부가 정치적 혼란와중에서는 정치적 패배와 혁명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인 권력의 중심이었던 군에 의지해야만 하는 형국이었다. 직업군인의 전형이었던 쾰프가 참모총장(1919년~1926년)이 된 후에야 군인의 직업윤리는 제정기의

22) 이풍석 편저, 「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1986, p.76 ~ 77.

옛 군인 윤리(군은 국가에 봉사한다. 왜냐하면 군은 당파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sup>23)</sup>)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 라. 대전 패전의 책임

전투의 승리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없었고 분산된 노력을 군사적인 집중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대전 패인의 주원인이었다. 더불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는 대전 후반에 루덴도르프와 같은 강성해진 군의 리더십이 정치와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군국주의를 발현하게 하였다. 독일군은 「참모본부」의 우수성과 타넨베르크 전투와 같은 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승리로 이끌어내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하였으며, 외교적 협상을 해낼 수 있는 정치가도 없었다. 비스마르크 이후 독일의 근대 역사에 이름이 알려진 수상이 없었음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루덴도르프가 의도한 바에 의해 영향이 적지 않은데, 군은 대전 패전 후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부재에 대해 원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전투의 승리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용병술적 전문성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였다. 결전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구하는 ‘섬멸전’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투 이외에 기동에 의한 유리한 여건 하에서 외교적, 정치적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비전’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이를 간과한 면이 크다. 강력한 정치지도자에 대한 향수 이전에 군은 본연의 전문성 견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 3.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정치와 군사의 정점에, 동시에 존재하게 될 히틀러가 나타남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확대, 그리고 패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군과 국민들이 지극히 구했던 강력한 지도자를 얻게 되었지만, 언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강력한 정치 리더십의 등장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

23) 와다나베 쇼오이치, 전게서, p.207.

### 가. 히틀러의 등장

독일이 갈망했던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자리에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나타났다. 독일 군부 역시 베르사이유 체제하에서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군의 위상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치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대전 후 생존한 독일군 장성들은 독일군과 참모본부의 우수성과 대비시켜 독재자인 히틀러의 전횡과 독선에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확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히틀러가 등장하던 즈음의 독일군 지휘부는 그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히틀러의 집권초기 군부 장악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호감 표명과 강제적 방법을 동시에 구사하였다. 먼저는 자신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였던 뢰름(Ernest Rohm)이 이끌던 SA(Strumabeteiligung, 돌격대)가 육군을 병합하려고 할 때 양측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자 육군의 편을 들어 뢰름과 SA지도자들을 총살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였다.<sup>24)</sup> 이후 히틀러가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사망 이후 독일 제국 총통에 즉위하자 군부는 신속하게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앞선 히틀러의 호의에 대해 즉시 화답하였다.

하지만 히틀러의 군에 대한 호의적인 구애는 오래가지 않았다. 히틀러가 생활권 문제 해결을 위해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군사력 운용을 주장했을 때, 육군 최고사령관 블롬베르크와 참모총장 프리치는 군의 전투준비태세의 미흡함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에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1938년 블롬베르크와 프리치를 포함하여 직책을 박탈하였다. 이로써 군부는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자 노력하는데 더욱 골몰하게 되었고, 군사력 확장을 위한 장교충원 과정에서 나치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였기에 군부는 더욱 히틀러와 나치에 귀속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 나. 대전의 발발과 전쟁수행

구 독일 최후의 참모총장인 쾨프가 베르사이유 조약의 제약 속에서 독일군의 재건을 맡고 나서 비밀 재군비에 박차를 가했다. 클라우제비츠나 몰트케와 같은 전문성을 지녔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사망했던 솔리펜과 마찬가지로 쾨프도 제2차

24) 제프리 메카기, 김홍래 역, 「히틀러 최고사령부 1933 ~ 1945년」, 2009, p.95.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군의 리더가 사라진 참모본부는 제2차 세계대전 발생 전에는 전면전쟁계획에 반대하였다. 군 일부에서는 터무니없는 전쟁을 시작하려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1938년)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통수권자인 히틀러에게 복종하고 전력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 직업군인의 의무였기에 히틀러의 지휘에 따라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 전 히틀러는 참모본부에 대해 얼마간의 열등감을 가졌으나 참모본부가 채택하지 않았던, 만슈타인이 작성한 낫질작전(Sichelschnitte)<sup>25)</sup>을 채택하여 초기 프랑스 전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히틀러는 우월감에 휩싸였고, 그 후 참모본부의 의견을 경시하고 번복하며 자기 스스로를 군사적 천재라고 자만하기에 이른다. 참모본부와 일선지휘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덩케르크에서 영국군을 섬멸하지 못했던 점과 양면전쟁에 처하게 만든 대소전의 개전은 히틀러의 간섭이 가장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얼마 후 참모총장 할더와 히틀러의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 민스크 포위에 이어 모스크바로 직행하고자 한 할더에 반해 히틀러는 남부공업지대 확보를 위해 중앙군의 일부인 구데리안의 제2기갑군단을 남쪽 키예프로 돌려버렸다. 이로써 60만의 소련군을 포로로 잡은 대승에 히틀러는 더욱 자만에 빠졌으나, 1개월간의 지체는 모스크바로의 진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후 아프리카 전역에 롬멜 장군이 이끄는 전차부대 파견, 할더의 후임 참모총장 짜이츨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6군을 스탈린그라드에 방치하여 둔 것 등 군의 의견을 무시한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독선과 아집의 폐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1944년 7월 20일, 또 한 차례의 히틀러 암살계획의 실패는 군에 대한 히틀러의 불신과 독선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짜이츨러를 이어 참모총장에 오른 구데리안도 절망하였다. 대전 말기 급기야 독일을 북부군관구와 남부군관구로 나누어, 북부군관구를 해군에 맡기고, 남부군관구는 공군에게 맡겼다. 결국 프러시아 건국 이래 항상 국가의 근간이던 육군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통과 영광

25) 낫질작전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솔리펜 계획과 흡사했던 황색계획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강력히 대비하는 북부지역이 아닌 중앙에 위치한 애로지형인 아르덴느 삼림지대를 통과하여 공격하는 계획이다. 마치 낮으로 벼나 밀의 밑부분을 잘라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으로 빛나는 독일 참모본부는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출현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sup>26)</sup>

#### 다. 대전 패전의 책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정치가가 약하여 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반대로 정치가 너무 강하여 군사작전의 승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군사적 가능성을 배제한 독선적 정치 논리에 의해 독일은 또다시 패배를 당하였다.

히틀러는 강력한 정치가였지만, 결코 바람직한 지도자일 수는 없었다. 히틀러는 외교적 노력으로 얻어낸 긍정적 산물이 사실 전무에 가깝다. 1938년 9월 28일 폴란드가 항복하자 10월 6일 히틀러는 평화를 호소하면서 서방 강대국들과 타협을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소련에 의한 폴란드 분할점령을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여 중동부 유럽의 문제를 종결짓고자 했지만,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대외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유럽은 순식간에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었다.<sup>27)</sup>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전역을 시작하는 히틀러의 전략목표 중 하나는 영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프랑스의 패배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세계전략 차원에서 자신의 요구조건에 부합한 대타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아르덴느를 통과한 독일 기계화부대 선봉을 라 바쓰(La Basse) 운하에서 정지하게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계화부대 기동에 불리한 지형 조건 때문에 정지시킨 것이나 그 이면에는 퇴각하는 영국군에게 ‘천혜의 교량’을 건설해줌으로써 영국과의 타협을 통해 유럽대륙에 대한 독일의 통제권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였다.<sup>28)</sup>

히틀러는 군사력을 서부에서 동부로 전환하여 러시아 전역을 개시할 때까지도 영국이 곧 양보하는 입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1940년 7월이 되어서야 히틀러는 자신의 낙관론과는 상반되게 영국이 미국의 지원 하에 계속 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했던

26) 와다나베 쇼오이찌. 전계서. p.216.

27) 안드레아스 힐구루버, 류제승 역, 「국제정치와 전쟁전략」, 1996, p.39.

28) 상계서, pp.57 ~ 58.

영국과의 타협을 성립시키고자 하는데 영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마지막 시도로서 1945년 5월 10일 제2인자 루돌프 헤스를 항공기편으로 영국에 보내었다.<sup>29)</sup>

이와 같이 대전 전반에 걸친 영국을 향한 히틀러의 구애는 희망사항으로 남은 외교 노력이 되고 말았다. 만슈타인의 작전계획을 채택한 자신의 판단과 독일군의 작전적 수준의 뛰어난 용병술에서 비롯한 ‘프랑스 전역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교적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 전쟁목적과 수단을 원만히 연결시키지 못한 채, 성취감에 뒤따르는 필연적 유혹인 독선에 빠져들고 말았다.

하지만 정치의 독선에 맞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독일군 최고사령부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군 총사령관 카이텔의 임명과정에서 ‘카이텔은 지시를 따르는 사환(使喚)에 불과하다.’ 라는 볼롬베르크 육군사령관의 평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다.’ 라는 히틀러의 대답은 카이텔의 인물됨과 국방군 총사령부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sup>30)</sup> 명령의 출납창구 정도로서 역할을 수행한 국방군 총사령부는 군사작전의 최고 지휘부로서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육군 참모본부와 전역작전에 대한 통제권한을 놓고 반목을 거듭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전쟁수행과정에서 정치와 군사, 모두는 히틀러라는 한 정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략적 판단이 부재한 가운데 시작된 전쟁에서 작전술에 대한 독일군의 우월성 덕분에 거둔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의 승리는 히틀러에게 독선과 오만의 벽을 높이 쌓게 하였다. 이로 인해 히틀러로 하여금 군사작전에 깊이 관여하게 하였으며, 수백 km 후방에서 현실감각 없이 자신의 희망에 기초하여 군사작전을 지휘함으로써 패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한 정치적 전략을 지닌 채 독선에 빠진 정치지도자와 군사적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끝내는 고스란히 작전지휘권마저 내줘버린 독일군 지도부는 가장 잘못된 정치와 군사의 관계 조합으로 남았다. 무능한 정치지도자가 군사작전까지 직접 관여하는 상황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와 군사의 조합이다.

29) 전계서, p.83.

30) 남도현, 「히틀러의 장군들 : 독일의 수호자, 세계의 적 그리고 명장」, 2009, pp.120 ~ 121.

## 4. 시사점

앞서 세 가지 시대의 전쟁수행에서 정치와 군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시대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각각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 이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교훈들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일반적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명제를 재확인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 가. 군사목표는 전쟁목적 달성을 지향해야 한다.

비스마르크는 프러시아 융성과 독일의 통일이라는 국가목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외교에 우선권을 두었지만, 무력충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호히 전쟁을 대비하고 또 결행하였다. 또한 시의적절한 강화협상을 통해 달성한 군사작전의 승리를 전쟁의 승리로 귀결시킬 줄 알았다. 군사작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최종상태를 지향하려 할 때 비스마르크는 설득할 줄 알았고, 또 기다릴 줄 알았으며, 군사작전이 나아간 만큼에서 최상의 외교적 협상결과를 일궈낼 줄 알았다. 보오전쟁간 빈 점령을 주장하는 황제와 군을 설득했고 보불전쟁시 파리 포위 후에 포격을 지연하는 군을 기다릴 줄 알았다.

몰트케는 프러시아의 이상에 대해 비스마르크와 공유하고 전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몰트케는 군과 정치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했던 직업군인이었다. 몰트케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군인이었지만 정치적 야망을 품지 않았으며, 자신의 역할인 군의 견해를 정력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클라우제비츠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몰트케가 지향했던 군의 위상은 비정치적 군대였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군의 올바른 입장을 그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군 사령관은 군사작전에서 군사적 승리를 목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 자신의 군사적 승패여부에 대한 정치적 처리여하는 그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가의 영역이다.”<sup>31)</sup>

31) 사무엘 P. 헌팅턴, 전계서, pp.130~131.

제1차 세계대전 말기 등장했던 강력한 군사지도자 루덴도르프는 민간과 외교의 노력을 무시하고, 군에 우선하여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에 의한 노력의 통합을 저해하였다. 정치의 외교 협상노력을 무시하고 정부각료의 인사에까지 관여하면서 전쟁을 고집하였다. 군사력이 소진되고 자신의 경질이 있는 다음에야 전쟁 종결협상은 체결될 수 있었으나, 이미 협상의 우위는 사라진 다음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정치와 군사의 정점에 동시에 존재했던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목적에 군사목표를 수단화하는 데는 어느 때보다 원할하였다. 하지만 그는 군사작전에 전문적이지 못했고 외교분야에서도 평화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협상에 이를 만큼 현실의 군사작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자신의 죽음과 완전한 패배에 이를 때까지 강화협상에 성공할 수 없었다.

우리가 수행하게 될 전쟁의 주된 모습은 원정작전이 아니고 우리 영토에서 국가의 제반요소를 총동원하여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짧은 작전중심과 빨라진 템포, 무기의 살상력 증대 등은 정치와 군사의 역할에 많은 도전이 될 수 있다. 국가 제반요소를 군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속에서 통제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작전반응시간이 짧아지고 통합 달성에도 유리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앞설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외교 영역은 존중되고 군사목표는 전쟁목적에 지향해야 한다. 주변 4대강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영토적 통일의 기회를 포함하는 유리한 여건 속에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전쟁은 정책의 연속, 정치의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 ~ 왜냐하면 정치적 의도는 목표이며, 전쟁은 그것을 달성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수단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32)</sup>

오늘날 전쟁양상의 변화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에 대해 의문을 야기하기도 한다. 적이 외교권을 가진 국가가 아닌 폭력집단이나 단체, 게릴라 등으로 확대되고, 끝까지 상대에게 손실을 가하겠다고 덤비는 적들에게 더 이상 살상과 파괴의 위협만으로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은 명백한 적이 존재하고 적과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의 연장선에서 정치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수단일

32)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계승 역, 「전쟁론」, 1998, p.55.

것이다. 군이 전쟁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억제수단으로서든,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공세수단이든 군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정치가는 전쟁과 군사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평시 양병은 전쟁의 큰 손실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는 보험료이다. 군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소수국가를 제외하고, 군사력 건설은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정치인에 의해 달려있다. 군대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치인의 지지가 없으면 전승을 보장받기 어렵다.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정치가들은 40년간 비스마르크가 유럽대륙에 가져다준 평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라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시대가 가진 인식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략적 긴 안목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예리한 통찰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은 국민 대중의 바람에만 영합해서는 안 되며, 안보와 국가이익이라는 큰 그림에 기초하여야 한다.

안보정책이 정치지도자의 개인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안보환경이 변화하였을 때 안보정책을 전환하는데 많은 기회비용이 지불할 수도 있다.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안보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정략이 아닌 국익에 우선한 지속성있는 국방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국방정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정파적이지 않고 군이나 정치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순수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제시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국의 사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안보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국가안보개혁 연구(PNSR, Project on National Security Reform)<sup>33)</sup>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안보 정책결정과 관련한 다수의 사례를 다년간 연구 분석해오고 있다. 주된 방향은 국가안보를 대통령 개인이나 의회 조직의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안보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다년간에 걸친

33) 홈페이지 : <http://www.pnsr.org/>

연구성과는 새로 수립된 현 오바마 행정부에 보고하게 되었다. 현재 제기된 방안들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안보연구집단 중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2010년 5월 9일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그보다 앞서 2009년 12월 21일에 출범한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미국의 국가안보체계 개선노력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군 스스로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외침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하는 본연의 자리를 고수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 체제의 안정과 존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정치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려는 배려가 필요하다. 확고한 대적관 확립, 군 인사권의 공정성 보장,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닌 장기적 안목의 군사력 건설 보장 등은 특정정파의 정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굳건한 안보를 위한 기본조건이다. 군이 정치개입에 대한 경계의 대상에서 튼튼한 안보 구축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줘야 할 배려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명쾌히 말할 수는 없으나 정치와 군사의 올바른 관계는 상호노력의 산물이다.

정치는 전쟁의 승리가 군사작전의 승리만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은 프랑스 전역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협상을 통한 유럽대륙의 통제권 확보에 실패하고 지속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올바른 전쟁목적 설정과 군사작전의 승리를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09년 추산 군사비 지출총액 세계 11번째, 무기수입규모 세계 3위<sup>34)</sup>임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상대적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강대국과의 외교 노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유리한 종전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 동맹체제 속에서 억제력과 외교력을 뒷받침 받더라도 이해당사국과 외교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부단한 협상력을 유지해야 한다.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중앙에서 외교적 고립에 처하지 않고, 적으로 하여금 고립상태에 빠지게 하기 위해 양자 간의 비밀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교적 우위를 달성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분단된 영토의 통일을 위한 기회로서 한만국경선까지 회복하는

34)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09년 군비·군축 국제안보연감

방안 이외에도 유리한 정치적 협상조건을 달성하기위한 제한전쟁도 생각해둬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장사정포 사거리내 수도권 인구과밀, 대량살상무기(WMD), 특수전 및 기계화전력 등 구조적 비대칭 위협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적 지지획득, 적의 외교적 고립, 전쟁수행의 정당성 유지 등 정치적 노력을 통해 폭력 대결을 피하거나 유리한 여건 속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다. 최소한의 군사작전만으로 전쟁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위대한 책무이다.

#### 다. 군은 전문성을 견지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군에는 정치에 의한 조기 정전협상 추구, 외교 협상력 부족 등에 의한 패배 인정 등을 탓하며, 패전의 잘못을 정치지도자의 실책으로 돌리고자 했다. 이는 루덴도르프를 비롯한 군사지도자들의 계산된 계략에서 나온 바도 있었지만, 자국영토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가운데서 혹독한 베르사이유 체제를 겪고 있는 독일 국민들 역시도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은 용병술 영역에 대한 자성과 발전 노력이 부족했다. 결전에 의한 ‘섬멸전’만을 구하던 모순에서 벗어나 기동도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마비전’에 의한 용병술의 발전을 도모했어야 했다. 쉘리펜의 유연을 지켜 강력한 우익을 지켜낼 수 있는 군내 리더십 부족을 반성하고 참모양성 만큼이나 리더십 계발에도 노력해야 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전후 생존 장군들의 회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략부재와 지나친 확전의 책임을 히틀러에게 전가하였다. 하지만 강력한 지도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군은 군비확충과 더불어 과거의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열렬한 지지와 그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혈안이 되었다. 대전 중에는 국가 전쟁목적과 정책수립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용병에 대한 최고사령부의 역할 수행 등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독일군은 자신의 전문성보다는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필요성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잘못된 성찰로부터 시작한 제2차 세계대전 에서도 그 패인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적어도 대전 직후에는 부족한 것 같다.

전장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한 무기 및 비무기 체계와 세대별 용병술,

합동작전지휘 및 수행 등 제대별, 분야별로 많은 직무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직업 군인의 전문성은 학문적 연구나 단기간의 압축된 경험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점진적이며 누적된 경험과 부단한 직무지식의 축적된 산물이다. 직업군인이 갖춰야 할 전문성을 인성과 지성으로 나눈다면 지성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풍요 속에서도 실무적 지식 축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직업군인들에게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교육을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보수교육체계 확대 구축, 각급부대의 간부교육,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의한 원격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군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견지하여 군사작전에서 승리를 추구함과 아울러 전쟁목적 설정, 군사력 운용에 대해 정열적이고 적절한 군사적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명한 자는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둔한 자는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조언을 하기란 참으로 어렵지만, 정치지도자에게 군사력 운용과 관련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성 견지는 필요조건이 된다.

#### 라. 군과 정치는 건강한 상호관계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정치와 일반대중은 각종 미디어의 발달,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인식, 다양한 보고 및 정보전파 수단 등에 의해 군사에 대해 잘 안다고 여기게 되었다. 정치가 군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 또는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군의 고유영역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를 경계하여 손자병법의 제3편 「모공(謀攻)」편에서 군주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군주가 군에 대해 근심을 끼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으니,  
군이 나아가서는 안 됨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고,  
군이 물러서서는 안 됨을 알지 못하고 물러나게 명하는 것이니,  
이를 일러 군을 속박하는 것이다.

군대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 군대의 정사(행정)에 간여하면 군대가 미혹된다.

군대의(전장에서의 임기응변적인) 작전을 알지 못하면서 군대의 작전(지휘)에 간여하면 군대가 의심을 갖게 된다.”<sup>35)</sup>

35) 노병천, 「기적의 손자병법」, 2006. pp.116 ~ 117.

정치의 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정치논리에 따라 때로는 적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거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현존하거나 발생 가능한 위협을 경시하거나 실제 발생한 위협을 정치논리에 맞게 가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정치논리에 의해 위협을 가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모두는 정치가 지나치게 군에 간섭했을 때 나오는 폐해이다. 또한 전장의 복잡성은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작전템포의 증가는 지휘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 정치의 지나친 개입이 이를 저해하면 어떠한 물리적인 우위를 갖는다 해도 전승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전쟁목적을 통해 군사작전목표와 주요부대운용에 대해 승인하거나 일반적 지침을 줄 수는 있어도, 군 고유의 작전지휘 영역에 대해 지나친 개입은 군을 단순 도구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극단의 예가 제 2차 세계대전시의 히틀러와 독일 국방군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군과 군인이 과도하게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시대에는 군이 직분을 넘어서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고, 상황이 급박해지면 정치적 리더십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시 루덴도르프와 같이 내각의 인사에도 관여하고 종전의 협상도 반대하는 극단의 모습이 그 예이다.

즉, 정치와 군사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의 전문성에 대해 인정하는 ‘건강한 상호관계’가 지켜질 때 국가안보가 더욱 튼실해질 수 있다. 건강한 상호관계는 상호신뢰의 기반에서 형성될 수 있다. 평소부터 정치지도자와 군사 간에 부단한 의사소통을 통해 전략지침으로부터 군사적 조치에 대한 관점을 일치시키고 굳건한 신뢰를 부여하여야 한다. 두 차례 걸프전시에 미국 주요 언론매체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이용됐던 반면, 우리사회의 언론은 스포츠 현장 중계와 같이 군사적 조치의 승패를 여과없이 전하고 있다. 전략적인 시나리오가 없이 스포츠의 골득실 실황 중계와 같이 전장상황 중계는 상호 신뢰를 쉽게 허물어트린 가능성이 높다. 신뢰의 조건인 군의 전문성 견지 노력과 더불어 정치지도자가 평소부터 양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신뢰를 형성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해나갈 때만이 굳건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신뢰는 상호작용의 부산물일 수 있지만, 신뢰를 목표로 하여 필요로 하는 노력을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 굳건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만이 유사시 확고한 대응과 조기 조치를 보장할 수 있다.

### Ⅲ. 결 론

**독** 일 근·현대사의 전쟁사를 통해 정치와 군사의 역할 수행을 분석하고 교훈들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프리시아를 중심으로 한 통일과 독일 제2제국의 수립과정에서 비스마르크와 로온, 몰트케가 보여준 전문성, 상호간 이해와 존중,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들에 대한 실천 등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몰트케와 비스마르크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면서도 끝까지 서로 신뢰하고 협력했던 것은 국가의 장래에 대한 근본인식을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 독일이 강력한 육군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국방에 도움이 될 천연의 요새는 없다는 클라우제비츠의 근본인식을 같이 하고, 독일 연방의 통일만이 프리시아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목표와 방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결과와 더불어 상호간에 건전한 견제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와 군사가 국가안보의 구축방향에 대한 동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한다. 군주제와 전제주의 국가와 같이 정치지도자가 장기간 일관된 국가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단기간의 임기를 통해 국가 안보전략이 변화하는 현실에서는 국가의 전략적 안목과 인식이 군사전략의 그것과 조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기 보다 시스템 구축과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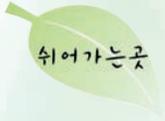
전쟁지도를 위하여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목적과 군사목표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요인들을 감소시키고, 전쟁 지휘자로서 평시 양병에 대한 관심과 지휘능력 배양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군은 국가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사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군사력 건설 및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국가안보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적절한 군사적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위해 무기 및 장비를 다루는 기술로부터 용병술에 이르기까지 전문성 견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치와 군사가 각자의 역할에서 전문성을 견지하였을 때 정치와 군사 상호간 상호신뢰를 굳건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호 역할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상호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군사가 정치의 단순한 도구로 남게 되는 경우에는 즉, 정치 논리가 군의 존재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시 군사력 건설방향, 유사시 군사력 운용방향

등이 단기간 내에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 오래전 비스마르크와 로온, 몰트케가 ‘강력한 프러시아를 통한 독일 통일’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오래도록 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다양한 안보위협이 내재된 상황에서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窮)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현재 북한의 안보위협이 부각되는 이 시기에 군사적 억제력과 전승보장을 위한 군사력 건설 및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바람직한 시기라고 본다. 향후 100년을 좌우할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다가올 5년은 군의 전문성 견지와 더불어 정치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1. 김장수. 「비스마르크 : 독일제국을 탄생시킨 현실정치가」. 2009.
2. 남도현. 「히틀러의 장군들 : 독일의 수호자, 세계의 적 그리고 명장」. 2009.
3. 노병천. 「기적의 손자병법」. 2006.
4. 바실 리텔하트, 주은식 역. 「전략론」. 1999.
5. 발터슈미트 외, 강대석 역. “오늘의 사상신서 166”. 「독일근대사」, 1994.
6. 빌헬름 몸젠, 최경은 역. 「비스마르크」. 1997.
7. 사무엘 P. 헌팅턴, 박두복 · 김영로 공역. 「군과 국가」. 1997.
8. 안드레아스 힐구루버, 류제승 역. 「국제정치와 전쟁전략」. 1996.
9. 와타나베 쇼오이찌, 강창구 역. 「독일군 참모본부」. 1992.
10. 이성훈. 「전쟁의 정치목적과 군사목표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미국의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2002.
11. 이풍석 편저. 「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1986.
12. 제프리 메카기, 김홍래 역. 「히틀러 최고사령부 1933 ~ 1945년」. 2009.
13.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역. 「전쟁론」. 1998.



(상 식)

## 우(友) 테크

**우테크**는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이고 행복하게 사는 전략이다,  
재(財)테크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몇 분의 일만이라도 친구를 만들고, 확장하고,  
익고,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할 때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 ♣ 당신이 먼저 연락하라.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 '언제 한번 만나자'는 말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점심 약속을 잡든지 다음날 전화나 이메일로 먼저 연락하자.

### ♣ 기꺼이 총무를 맡아라.

평생 '갑(甲)'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하면 더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항상 남들이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다.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회비를 걷는 일은 성가시다.  
그러나 귀찮은 일을 묵묵히 해낼 때 친구는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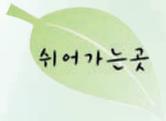
### ♣ 매력을 유지하라.

항상 깔끔한 차림새를 하고, 끊임없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새로운 음악을 들어야 매력 있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

### ♣ 우테크의 일순위 대상은 배우자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우자를 영원한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  
우선 배우자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자기 취미 강요는 금지)





쉬어가는곳

\*\*\* 우테크 10훈 \*\*\*

- |                             |                            |
|-----------------------------|----------------------------|
| 1, <b>일</b> 일이 따지지 마라,      | 2, <b>이</b> 말 저 말 옮기지 마라,  |
| 3, <b>삼</b> 삼오오 모여서 살아라,    | 4, <b>사</b> 생결단 내지 마라,     |
| 5, <b>오</b> ! 예스 하고 받아 들어라, | 6, <b>육</b> 체 접촉을 자주해라,    |
| 7, <b>7</b> 할만 이르면 만족해라,    | 8, <b>팔</b> 팔하게 움직여라,      |
| 9, <b>구</b> 구한 변명 늘어놓지 마라,  | 10, <b>10</b> %는 베풀면서 살아라, |

진정한 우정은

- ♣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 ☞ 시간이 남을 때 찾아가는 친구가 아니라,  
바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여야 합니다.
- ♣ 우정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사랑을 위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그것이 진정 순수한 사랑과 우정입니다.  
우정과 사랑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영혼의 교감이며 삶의 동반이기 때문입니다.
- ♣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헤어짐을 슬퍼해야 합니다.
- ☞ 또한 친구와의 헤어짐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그리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 한 번의 우정은 이 세상이 다해도 끝없이 이어질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